



2021년 3월 7일(제1025호) 시순 제3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하느님의 용서”

우리 가운데 용서를 쉽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만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하느님의 용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용서보다 우리의 수고를 먼저 생각합니다. 고해소를 찾는 어려움, 단식의 불편함, 기도의 귀찮음, 자선의 기회비용과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본기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기도문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는 까닭은 오직 하느님의 “온갖 은총과 자비” 덕분입니다. “온갖 은총과 자비.” 거기에 하느님의 아픈 사랑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1독서는 탈출기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해주시신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당신께서 백성을 바라보시듯, 당신의 백성도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은 결국 끊임없는 배반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복음 속 예수님께서서는 파스카 축제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파스카 축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시신 하느님의 구속사업을 기념하는 거룩한 축하 행사입니다. 그러나 술한 배반 위에 서 있는 자신들을 드러내듯,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속된 장사꾼들과 환전꾼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께 유대인들은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 줄 수 있소?”

저는 유대인들에게서 우리의 초상을 발견합니다. 거듭 되는 사순 시기, 회개와 뉘우침 대신 타성에 젖어 세상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요. 하느님의 용서가 너무 익숙해, 이제는 용서보다 내 처지를 더 따지게 된 우리의 배운들요. 마오로 사도는 우리를 “하느님의 성전”이라

말합니다(1코린 3,16). 장사꾼과 환전꾼은 정말 2천 년 전 예루살렘에만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 성전에도 온갖 숫자들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복음 속 예수님의 답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이 성전을 허물 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주님께 신 허물어지지 않는 우리의 속된 성전 대신,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허무십시오.

제2독서에서 마오로 사도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 ... (이지만) ...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져 아팠지만, 그뿐입니다. 당신의 성전을 허무는 사랑이 그들을 바른길로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어제와 같은 오늘을, 작년과 같은 올해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희망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은총의 사순 시기도 벌써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우리 마음으로 오십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 타성을 내쫓으시고 다시 하느님을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는 숨 쉬듯 베풀어지는 주님의 용서에는 그분의 고통과 아픔이 숨어있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용서의 무게에 대해 묵상하는 뜻깊은 사순 셋째 주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승원(베드로) 신부
은성대(19전비전)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환호송

탈출 20,1-17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1코린 1,22-25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복 음
영 성 제 송

요한 2,13-25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다섯 번째 시한

잠시 길을 걷고 있을 때 세관쪽에서 약 30명 가량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고향을 치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경찰관들인 줄로 알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경찰관들도 있고 손님들의 안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질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부님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걸어가셨고, 그들은 오랫동안 질문하여 우리를 괴롭힌 후, 자기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백가점(白家店)이라 불리는 교우촌으로 길을 재촉하였고, 두 요셉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촌락은 바다에서 60리 가량 떨어져 있는 곳으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신자들이 약 200명 가량 살고 있는 곳입니다.

두 요셉의 가족 외에는 이곳 신자들은 신부님을 영접하기를 꺼리며 더구나 신부님을 쫓아내려고 음모를 꾸미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를 주교님과 그들 집에 머무르시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인심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여 주교님과 신부님들에게 불쾌한 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편지지가 넉넉하다면 신부님께 그런 사정을 전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브뤼니에르 신부님은 토마스와 함께 개주 부근에 있는 양관(陽關)이라는 교우촌에 계시고, 매스트르 신부님은 저와 함께 어떤 과부의 조그마한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온 소식에 대하여는 스승님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다만 존경하올 베를 주교님이 변문(邊門)에 파견한 연락원이 외교인들한테서 얻어듣고 돌아와 주교님께 보고한 바를 전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조선어와 중국어와 서양어에 아주 능통한 두 명의 외국인들이 종교의 이유로 조선인 30명과 함께 참수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 아우구스티노(유진길)는 그렇게 엄청난 범죄의 주모자로서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는 여섯 조각으로 찢겨 새들의 밥이 되었으며, 그의 모든 가족들은 멸족되었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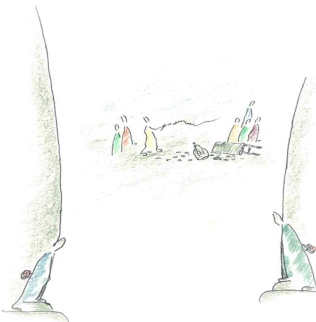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신부님들은 거짓 신자로부터 밀고당하였다 하며 그 자는 신부님 얼굴을 익히려는 의도에서 입교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해봐라.
네가, 언제까지
날뛰는지 두고 보자.

고개를
조아리게
되어 있어.

결국,
우리 밭밀에
무릎을 꿇고,

그래, 지금은
해봐라
한번
날뛰어봐.

상화이야기

골고타 산으로의 십자가의 길



골고타산으로의 십자가 행렬을 그린 이 그림은 사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넘어지신 예수님을 찾아보는 것도 힘들 정도로, 수많은 인원이 등장한다. 구불구불한 지형과 여기저기 군집해 있는 이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속에서 길을 잃을 것 같다.

브뤼겔(아버지)
1564년경 제작
124 x 170cm
비엔나 미술관, 오스트리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그림 전체를 십자가처럼 나누어 그 정중앙 지점을 보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 예외가 있다면 오른쪽 하단의 성모님과 사도요한과 마리아 막달레나로, 이들은 예수님의 수난에 동참하며 슬퍼하고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시순 제3주일: 진군 최병규 신부

◆ 교구장 동정

- 주교회의 2021년 춘계 정기총회
 때·곳: 3월 8일(월)~12일(금), CBCK
- 국장회의
 때·곳: 3월 9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교구 '잇숨 상기대' 단원모집

-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